외환 수급 개선 방안

2024. 12. 20.

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

목 차

I. 현 상황 평가 및 정책 방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
Ⅱ. 개선 방안2
1. 건전성 규제 완화 2
2. 외화 대출규제 완화 3
3. 외화조달 여건 개선 3
4. 이종통화 결제 여건 구축4
5. 외환당국-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 4
IV. 향후 추진 계획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Ⅰ. 現 상황 평가 및 정책 방향

- □ 그간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, 외환 유입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
 - ☞ 국제금융·외환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기조를 재검토
 - 1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 형성
 - * (유입) 과도한 자본유입 및 차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되며 제약 (유출) 美 증시 호조 등 영향으로 연금·개인투자자 해외 투자 증가로 확대
 - ② 이제는 외환보유액이 4,000억불을 상회하고, 10년전 흑자 전환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불에 이르는 등 견고한 대외안전판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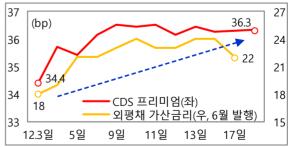
(기말 기준)	외환위기 이전 ('96)	금융위기 당시('08)	최근 상황
외환보유액 (억불)	332	2,012	4,154 ('24.11)
순대외금융자산 (억불)	△635	△703	9,778 ('24.3/4)
단기외채/총외채(%)	48.5	46.6	22.6 ('24.3/4)
단기외채/보유액(%)	211.4	72.4	37.8 ('24.3/4)

- ❸ 최근 WGBI 편입 등으로 자본시장 발전 여건 성숙 → 원활환 외화수급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 있는 관리정책 필요
- 4 엄격한 규제가 금융기관의 외화 운용 효율성을 일부 제약*하고, 최근 사태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
 - * 건전성 규제를 맞추기 위한 분기말 외화자금수요 확대 →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

분기말 전후 외화 유동성 지표 악화

-60 (bp) 60 60 -72 분기말 전후 지표 않화 40 40 20일 10일 20일 10일 20일 30일 0 0

12.3일 이후 외화조달 비용 상승



- ◇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
 - 다만, **견조한 대외건전성**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**추진**

Ⅱ. 개선 방안

1. 건전성 규제 완화

- □ (선물환포지션) 한도 상향 (국내은행 50→75%, 외은지점 250→375%)
 - **●** (현황) 국내은행 50%, 외은지점 250% 한도 적용 중
 - 과도한 자본유입·단기차입을 막기 위해 '10.10월에 도입한 이후 외국환거래규정 범위 내*에서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
 - * 제2-9의2 ②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.
 - 1.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, 다만,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100분의 250

(%)	'10.10월(도입)	′11.6월	′12.12월	′16.7월	′20.3월~
국내은행	50	40	30	40	50
외은지점	250	200	150	200	250

- ② (개선) 국내은행 75%, 외은지점 375%로 상향 (기존대비 +50%)
 - 은행권 건의^{1」}, 규정(제2-9의2 ② 2호^{2」})에 명시된 가감 범위 반영
 - 1」 주요 은행들은 외화운용 제약에 따른 어려움, WGBI 편입 및 RFI 진입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 확대 등에 근거하여 현행의 150% 수준으로의 한도 상향 필요성 제기
 - 2」 기재부장관은…선물환포지션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
- ③ (조치사항)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 통첩 <금년 중>
- □ (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) 정합성 제고 및 강화된 규제 유예
- (현황) 금감원은 가정된 위기상황 下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운영 중 ('11.6월~)
 - 6월부터 강화된 S/T* 시행 중 + 내년부터 미통과시 조치도 적용
 - * 생존기간 도입(기존 : 1.3개월말 기준 평가 \rightarrow 추가 : 연속적으로 S/T 통과하는 최대일수 산정) 등
- ② (개선)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
 감독상 조치* 유예 연장('24년말 → '25.6월)
 - * 위반시(외화자금 유출>유입) "유동성 확충계획" 제출
- ③ (조치사항) 금감원 자체 운영기준(실무 매뉴얼) 변경 <금년 중>

2. 외화 대출규제 완화

- □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
 - ① (현황) 원칙적 금지 + 중소·중견기업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'10.6월말 잔액 內(64.6억불) 허용 중(한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)
 - * (제2-9조(1)) 원화용도 외화대출 금지 (②) 중소제조업체 시설자금 허용(10.6월 잔액內)
 - '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에 대응하여, 단계적으로 제한
 - * ('07.8) 운전자금 목적 대출 금지 ('10.7) 시설자금 목적 대출 제한
 - ② (개선) 대·중소·중견기업(소상공인 제외) 시설자금* 용도 대출 허용
 - * 대외건전성을 감안,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"시설자금" 용도에 한정하여 허용
 - 필요시 **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**을 고려,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(자연헷지* 가능) **수출기업으로 제한**하여 추진
 - * 수출업체는 보유 외환(수출대금)으로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금 상환 가능
 - ❸ (조치사항) 한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<'25.1월>

3. 외화조달 여건 개선

- □ 국내기관의 **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**(LuxSE) 채권 상장 시 **편의 개선**
- (현황)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(LuxSE)는 최대 국제채권 거래소* 이나, 엄격한 절차로 국내 외화채권의 참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 * '23년 전체 글로벌 채권상장 중 LuxSE 상장이 30% 이상 차지
- ② (개선) LuxSE 상장편의 개선 등 외화조달이 용이한 환경 조성
 - 국내기관의 LuxSE 채권 상장시 **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¹ 하고,** 국내기관(한국거래소 상장기업)에 상장절차 간소화 혜택 제공²
 - 1」LuxSE를 금융위 고시 상 "해외주요시장"(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)으로 지정 2」상장절차 간소화제도(Fastlane) 적용 대상에 "한국거래소 상장기업" 포함
- ❸ (조치사항) 금감원장 결정공문 발송, LuxSE 내부 기준에 반영 <금년 중>
- □ 현재 엄격한 제한 적용 중인 국내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서는 발행 시기·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

4. 이종통화 결제 여건 구축

- □ 기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 확대
- (현황) 한-인니간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*(LCT)가 '24.9월말 출범
 - * Local Currency Transaction Framework : 무역대금 등을 달러환전 없이 양국 통화로 결제
- ② (개선) 한→인니 지급시 무증빙 한도 상향¹, LCT 수행은행 (ACCD)의 계좌 일말잔액 한도 상향² 등 통해 LCT 활용 활성화
 - 1」(現) 건당 5천불, 연간 10만불 (現 외국환거래규정과 同) → (改) 건당 10만불
 - 2 (現) 각각 4천억 루피아(약 336억원), 3백억원→ (改) 8천억 루피아, 7백억원
 - 말레이시아*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추가 LCT 체결 검토
 - * '23년 한국의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53억불(전체 수입의 약 2.3%, 전체 수입국 중 10위), 또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LCT 旣 시행중
- ❸ (조치사항) 한-인니 LCT 가이드라인 수정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/ 한-말레이시아간 LCT 추진 협의 <'25년중>

5. 외환당국 - 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

- □ 외환당국(기재부·한은)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확대 및 만기 연장
 - **1** (현황) 현재 500억불 한도의 외환스왑을 '24년 만기로 운영 중
 - ② (개선) 한도 확대(500→650억불) 및 만기 연장('24→'25말)
 - ❸ (조치사항) 외환스왑 증액·연장 계약 <금년 중>

Ⅲ. 향후 추진 계획

- 1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
- ② 금번 방안의 시행 효과,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 추진